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마태복음

왼손이 모르는 오른손의 구제

(마 6:1-4)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헌신과 봉사, 구제와 금식을 하며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1절)

1. 외식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제일 먼저 구제에 관해 언급하십니다. 구제는 모세오경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하신 부탁입니다(신 10:18-19, 26:12).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시편과 잠언을 중심으로 구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잠 19:17, 시 14:1).

율법의 말씀과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유대인들의 구제는 저들의 일상이었고, 철저히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제의 사역에 관해서 예수님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입니다(2절).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역이 되어야 할 구제를 하면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무시하면서 형식적으로 구제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 분 앞에서 우리가 외식을 하거나, 위선을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격과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2. 은밀하게 구제하라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거리에서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3절). 은밀한 구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구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돕는 선한 손길.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구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은밀한 구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신 15:10).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신 15:11).

세상에 구제를 받아야 할만한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도록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구제하지만 우리는 은밀한 구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구제를 해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과 봉사와 구제를 하시며 하늘에 상급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Right hand's relief to the needy when the left hand doesn't know it

(Matt. 6:1-4)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We all live our life with the disease and mindset to want to boast about everything. And this life runs into our spiritual life, and so we want to show off our faith by making known to all what we dedicate, how we serve, when we help the needy, and when we fast. Jesus warns us as follows:

“Be careful not to do your ‘acts of the righteousness’ before men, to be seen by them. If you do, you will have no reward from your Father in heaven” (v. 1).

1. Do not be like the hypocrites

Jesus tells us that we should not show off and emphasizes the relief to the needy. Bringing relief to the needy appeared not only in the five books of Moses but also in many different places in the Bible. It is God's special request toward us (Deut. 10:18-20, 26:12). It is our God who loves orphans, widows, and wanderers, feels pity for them and gives them His love.

With the book of Psalms and the handbook of the wisdom books as its center, God's wonderful blessings to those who give to the needy are recorded in the book of Proverbs 19:17 and Psalms 14:1.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aw and Jewish tradition, the Jews gave to the needy regularly and aimed vigorously to obey this. Nevertheless in regard to such a relief work, Jesus reveals how to do this (v. 2). Whenever they gave to the needy, the Pharisees had to do this in a holy and good way. However, they were not doing this. They outwardly pretended to love the poor while they inwardly ignored them and just formally gave to the needy to make themselves look great. Jesus spoke of them as ‘hypocrites’. Before God, if we are acting in this way, we bring insult to God's divinity and character.

2. Give to the needy in secret

When the Pharisees gave to the needy, they did it in the many synagogues and on the street. However, Jesus says that when we give to the needy, do not let your left hand know what your right hand is doing (v.3). All of these kinds of giving, e.g. giving in secret, giving without having any reward, and the good helpful hand without being conscious of other people's eyes, only with a mind of God's love and righteousness are the aspects of relief that God wants.

If we give to the needy in secret, appropriate to words of Jesus, and give to the needy in such a way that the left hand does not know what the right hand is doing, then God will bless us in all our work and in everything we put our hand to (Deut. 15:10).

“There will always be poor people. Therefore, I command you to be openhanded toward your brothers and toward to the poor and needy in your land” (Deut. 15:11).

It will be good if in the world, there are no poor people who are in need. But God says that there will always be poor people left in the world until the end. And through the poor can be found a passage way to receive God's blessings.

My beloved Christians,

Christians must be different from the worldly people. Though they give to the needy for their name and glory, we must give to the needy in secret, and give to the needy without having any reward.

Look to God who sees and rewards us in secret. By giving to the needy, devoting to and serving people with a joyful and thankful mind, I earnestly pray that all of you and I will accumulate a prize in heaven.

2012년 단기선교팀 파송

우리교회는 올해도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대명령에 따라 복음의 불모지 두 곳에 단기선교팀을 파송하여 현지에서 파송한 선교사를 도와 복음 전파에 힘쓰고자 한다.

1. 제1 단기선교팀

- 일정: 7월 23일(월)~31일(화) - 9일간
- 대상국: 캄보디아(어재물, 박병진 선교사)
- 모집대상: 청년 15명 · 지도: 박광일 목사 · 단장: 김금준 집사

2. 제2 단기선교팀

- 일정: 8월 2일(목) - 11일(토) - 10일간
- 대상국: 인도네시아(서광중, 이성일 선교사)
- 모집대상: 의료선교회팀 및 이,미음팀(청년 포함) 20명
- 지도: 유문건 목사 · 단장: 김구태 집사

단기선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2012년 2월 학습·세례식 거행

지난 2월 22일 수요일 1,2부 예배시 2012년 첫번째 학습·세례식이 있었다.

- 금번 세례/입교/학습/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세례자> 윤석준1, 이상현2, 이지은10, 전호민 계 4명
 - <입교자> 김예원3, 오유진, 유영진, 이주현3, 이지영7, 임수현 계 6명
 - <학습자> 권정임, 김미자2, 박규현, 이아영2, 이우태, 이현주4 정영준, 정지아, 차준형, 한정민, 한정윤 계 11명
 - <유아세례자> 김연우, 박준우5, 윤서진, 최무진 계 4명
- 총 25명

권사회 연합수련회

29일(수) 오후 1시 웨스트민스터홀

제1, 2 권사회 연합 수련회가 오는 29일(수) 수요일 1부 예배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있다. 이번 수련회는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함께 하는 특별 집회로, 오세광 목사의 "평범과 비범 사이"라는 특강이 있다.

2012년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수련회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26(주)~28(화)	서울교회	나는 빛! 나는 소금!	최인에 전도사
유치부	2.26(주)~28(화)	서울교회	착한 행동을 하나님께!	박다형 전도사
유년부	2.26(주)~28(화)	서울교회	나의 삶이 주님께 영광!	김안성 목사
초등부	2.26(주)~28(화)	서울교회	하나님의 빛!	이신우 전도사
청년1부	2.29(수)~3.1(목)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비전으로 부흥하는 청년	박노철 목사 / 박진아 목사
청년2부	3.1(목)~3.3(토)	아가페타운	세상의 소금과 빛!	박노철 목사 / 오세광 목사

천국시민양성 - 신앙강좌2부

Veni Creator Spiritus!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서은석 집사(신앙강좌 2부 교사)

믿음의 세수가 더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를 소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세수의 깊고 얕은 인간 세상에서 존경이나 대접의 척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믿음 안에서는 무의미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바르게 알고, 힘써 행함으로써 잘 했다 칭찬받는 유익한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온전히 깨닫고 행함으로써, 곧 사라질 인간 세상의 무의미한 것에 열정을 쏟아 붓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일 2부 예배 후 12시 40분 701호에서 성도님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

는 신앙강좌 2부 모임이 있습니다.

김재진 목사님(송실대)께서 지금까지 『성령론』, 『성경의 인간학』, 『말씀의 비밀과 신학적 영성』, 『히브리적 성경의 이해』에 이어 특히 2012년에는 『성경의 보혜사 성령론』이란 교재로 저자 직강을 하십니다. 보혜사란 무엇인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입니다. 파라는 곁에, 또는 옆에 라는 말이고 '크레토스'는 부른다는 뜻입니다. 내 옆에 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 유지해 주시며, 늘 함께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보혜사입니다. 학문적으로 난해한 성령론을 강의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까지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먼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른 인간들과 분리되어 고독하게 살아가는 인간을 화해시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음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성령의 역사하심을, 마지막으로 거룩한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게 되는 성령세례(성령충만)를 신



김재진 목사

목사님, 궁금해요!

이중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38]

(문 33) 주님은 왜 애굽의 장자와 첫 새끼를 모두 죽이셨나요?

(답) : 국가는 공동이익집단입니다. 그런고로 어느 국가나 민족이든지 집단개념 이외의 다른 것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한 나라의 시민은 그 나라를 지배하는 정치 형태에 따라 그 삶의 양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형태나 군주주의 또는 독재체제와 같은 제도에 따라 그 백성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현명하고 성공적인 정부라면 모든 백성에게 유익과 평안을 줄 것이고 그들의 군대는 적들로부터 백성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악한 정부는 백성들로 하여금 재앙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때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바로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정부가 잘못 결정한 것이 결국은 온 백성에게 역사적 재앙을 불러들이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주님께 대적하므로 주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 애굽 천지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첫 새끼는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필시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 바로는 왕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졌고 그러나 법적 처리자로서 그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입장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애굽왕의 가족 뿐 아니라 모든 귀족들의 가정에도 슬픔이 닥쳐오므로 이스라엘 민족과 가족들을 더 이상 노예로 잡을 수 없어 풀어주도록 강요를 당한 것입니다. 이때 주님으로부터 애굽에 내린 재앙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 되었던 상태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충분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애굽의 장자를 쳐 죽이시는 재앙을 부으시면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문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문설주에 문은 피에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공물이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던 세리의 기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길만이 죽음을 면할 수 있지 때문입니다. (다음주 계속)

양강좌 2부에서 전파하고 계십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심오한 말씀의 샘물을 함께 마셔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이런 귀한 시간을 통해 성도님들께서 바른 신학, 바른 신앙을 배우므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길잡이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됨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늘 깨어 진리의 영으로 온 삶이 찬양이 되시길 간구합니다.

주일 2부 예배 후 701호로 오세요!!!



사순절의 기도



박노철 목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은 지푸 흘러 2012년 새해의 설렘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벌써 사순절이 시작되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역만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며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이었습니다. 가시면류관, 칠패의 조롱과 멸시, 그 모진 채찍들을 온 몸을 다 받아내시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끌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 결국 그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에 박히셨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 마지막 물과 피까지 다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실로 우리를 위한 것이며,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우리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

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지푸 죄의 응덩이에 빠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을 박는 허무맹랑한 짓을 여전히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주시어 이제 시작된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신음하시는 주님의 거친 숨소리를 듣게 하시고, 떨어지는 핏방울로 우리의 삶이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건의 모양만 가진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으며 복음의 편지로 읽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3.1절 특별 기고

3.1절과 한국교회

3.1독립운동은 기독교 신앙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졌다. 3.1독립운동은 한국교회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일제(日帝)가 한국과 합병을 꾀하려 할 때 똑똑한 말로 반대했던 명성황후(민비)를 일제는 자객들을 시켜 “여우사냥”이라는 작전으로 경복궁에서 잠자던 국모(國母)를 칼로 죽여(1895. 8. 10) 불로 태웠다. 명성황후는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과 친숙하게 지냈고, 전도도 받아 천국에 가고 싶다는 고백도 했다고 한다. 이런 사건 후, 고종 임금의 매일 떨어질 살았고, 독살 당할까 봐 밥을 가져오면 개에게 먼저 먹였다고 한다. 그리고 일제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선교사를 불렀고 상의하게 되고, 각 지역 교회는 애국지사의 집회와 결사의 처소가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의 기독교는 민족교회로 발전했다. 일제 지배 하 절망에 처했던 민족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던 단체가 교회였다. 교회는 민족의 열과 그 힘의 맥이었다. 민족의식의 결정과 그 표현의 무대였다. 한국에서는 일제의 박해 때문에 교회가 민족혼의 산실이 되었다. 이것은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민족교회는 전국조직망을 통하여 3.1독립운동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 하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이 거국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며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날이다. 1919년 2월 8일에 일본 동경에서 유학하던 조선학생들이 2.8독립선언을 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내에 있는 기독교 학생들이 독립 거사를 준비하다가 어른들이 하는 독립운동의 제의에 함께 하게 되었다. 독립선언문의 대표 33인을 보면 16명이 기독교인이고 15명이 천도교인, 그리고 2명이 불교인이다. 그 숫자에서 보듯이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했는지 알 수 있다.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명 기독교 지도자가 서명하였다.



김영한 협동목사 (승실대 교수, 신양강좌회 부지도)

“ 3.1 운동은 일제 군국주의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소망을 선언한 것 ”

박은식이 쓴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따르면, 독립만세운동에 200여만 명이 참가하여 7,509명이 사망, 15,850명이 부상, 45,306명이 체포되었으며, 헬리고 불탄 민가가 715호, 교회가 47개소, 학교가 2개소였다. 일제에 의해서 만세운동이 탄압을 받을 때에 유독 그렇게 많은 교회가 불에 탄 이유는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독립만세운동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불에 탄 47개의 교회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곳이 바로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감리교회’다. 일제 경찰들은 1919년 4월 15일 오후, 제암리교회에 교인들을 모이게 하고는 문을 폐쇄하고 불을 지른 후에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4월 5일 발안지역에서 발생했던 만세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제암리교회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이었다.

독립선언서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문구가 있다. “아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구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일제의 총칼에 의해 핏방울이 맺힌 군국주의 세상을 거부하고, 정의, 자유, 평화, 평등, 화해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소망을 선언한 것이다. 독립선언서는 정의, 자유, 평화, 평등, 화해 등 인류의 보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3.1운동 당시 전체 인구의 1%정도에 불과했던 기독교인은 그 미약한 힘으로도 독립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숫자가 아니라 믿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3.1독립신앙이 갖는 투철한 자유와 민주 사상으로 오늘날 한국사회를 내분시키는 종북주의와 반미사상을 혁파해야 할 것이다.



한대석 집사 (신혼가정부 회장)

지난 2월 11일 서울교회 802호에서는 결혼 1~2년차의 신혼부부들이 모여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한상은 목사님께서 신혼의 때에 가정에서 사회에서 소금과 빛으로의 삶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참석한 여섯가정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고 착한 행실로 모범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일에 신혼가정부에서는 15주 과정으로 “부부십계명”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한 기초적인 말씀공부로서 이번 수련회에서는 부족했던 부부간의 대화와 가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양과 기도회를 통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한 가정만이 할 수 있는 친목의 시간, 그리고 부부가 협력하여 케익만들기로 즐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수련회 뿐만 아니라 주일 모임 또한 항상 즐겁고 은혜로운 신혼가정부에 서울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겨울 성경학교 초대

예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홍성주 장로 (교육위원장)

유년 시절 교회에서의 아름다운 기억들은 아이들 평생에 선한 영향력으로 자리잡아 별 생각없이 배웠던 성경 말씀과 찬양들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그 의미가 영혼에 새록새록 새겨져 아이들 믿음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 자녀들을 두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번 겨울성경학교에 꼭 참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아부(부장 최차순 집사)
-유아부의 겨울 성경학교 주제는 "나는 빛, 나는 소금"으로 유



아들에게 세상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과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학습센터 그리고 기쁨놀이터를 통해 가르치고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대상 25개월~5세

유치부(부장 송인수 집사)-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 빛을 이웃들에게 비치게 하여 이웃들로 하여금 착한 행동을 보고 하늘 나라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마 5:13-16)"착한 행동을 하나님께"라는 이번 성경학교 주제를 통해 우리 아이들 심령에 예수

님을 체험하게하고 예수님이 걸으신 거룩한 길을 본받아 살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주기도문을 암송

하도록 하고 한 구절씩 그 의미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유년부(부장 김진환 집사)- 신약 성경의 전체 틀과 예수님 이야기를, 예배와 신나는 놀이와 게임, 퀴즈 및 보물찾기 등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또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기쁨을 알게 해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초등부(부장 서경화 집사)- '신나는 성경탐험-하나님의 빛'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에 담겨 있는 복음의 발걸음을 입체적으로 탐험하며 배워가게 됩니다. 신나고 창의적인 레크레이션이 준비되어 있으며, 협동학습을 통하여 서로가 호흡하는 경험들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 시민양성 - 대학부 수련회를 마치고

만월이 차오르듯

김휘 (대학부)

만월이 차듯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차오릅니다. 세상에 나아가 이리저리 치이다보면 그 사모함이 점점 이지러지고 맙니다. 다시금 수련회가 다가오면 조각난 믿음의 파편들이 하나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수련회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물 흘리게 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경험을 시켜주시는 시간.

하나님의 뜻에 의해 대학교에 합격하고 난 뒤, 그 간절했던 마음은 희미해지고, 난 그 자유로움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첫 관문 대학에 이런 믿음과 마음가짐으로 간다면, 하나님을 차차 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될 것 같아, 두려워진 마음을 다잡고 이번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전 수련회

까지는 항상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며 눈물 흘리던 내가, 이번 수련회에는 아무 은혜 없이 찬양하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정도를 생각하면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간증시간, 간증이 아닌 고백을 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내 모습을 하나 둘 씩 고백해나가자 갑작스러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죄송스러움을 느끼며 그를 사모하는 마음이 샘물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길에서 벗어난 나를 다시 그 길 위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항상 수련회마다 나에게 놀라운 일을 주시는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참석한 모든 이들이 크고 작은 놀라움을 경험했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처럼 희미해진 믿음의 불씨에 북게 될 기쁨을 찾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간절하게 찾던 자신의 비전을 찾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사모의 물통을 가득 채우고 돌아와 세상에 부어주고 다음 수련회에 다시 가득 채워와 또 다시 세상에 부어줍니다.



우리교회 후원으로 21일(화) 오후7시에 간호사관학교 제52기 졸업 및 파송예배가 간호사관학교 국군민음교회에서 열렸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월27일(월) 장로교정체성회복위원회에 참가한다. 3월3일(토) 사랑의쌀운동, 울란바타르대학교 이사회에서 설교한다.
- 이사: 5교구 신규철/전인숙 집사, 중구 신당6동 45 이편한세상 109동 502호
- 피선: 5교구 최미아 권사, 강남노회 예전도회연합회 수석부회장
- 주간식당 봉사: 바울선교회(2.26) 엘리야선교회(3.4)
- 금주의 식사: 정기동 집사전배호 권사 가정 (정기동 집사 팔순 생일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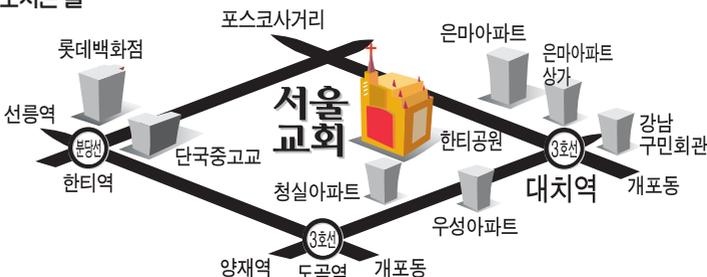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3·1절을 맞이하여 애국애족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더욱 견고히 하여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되도록
- 이번주에 시작되는 교육 1구 겨울성경학교와 청년 1부/2부 수련회를 통해 말씀과 찬양의 기쁨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 이제 시작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